

壬辰倭亂期 朝鮮 官僚가 바라본 日本軍

- 平昌郡守 權斗文을 중심으로 -

方 琪 喆

(동서울대학교 강사)

1. 머 리 말
2. 權斗文과 『南川先生文集』
3. 日本軍의 平昌攻擊과 占領政策
4. 日本軍에 대한 認識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조선전기 조·일관계는 倭寇 禁壓, 荒唐船 출몰, 통상을 둘러싼 무역규모, 倭館거주 일본인의 소요사태, 僞使 파견과 사신접대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양국은 갈등 속에서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交隣의 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壬辰倭亂은 이러한 우호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갑작스런 침략을 당한 조선의 피해는 매우 큰 것이었다. 조선은 國王이 都城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고, 역사상 처음으로 分朝가 이루어졌다. 또 宮闕·宗廟·成均館 등이 훼손되고, 宣陵과 靖陵이 도굴되는 수모를 당했다. 전국토의 55.2%가 일본군의 침략을 당했으며,¹⁾ 170만 결이던 농지 면적이 전쟁 후 54만 결로 줄어들었다.²⁾ 전사자와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알 수 없을 정도이며, 일본으로 납치된 被虜人의 수만 해도 10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종전 후에도 조선은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國家再造에 힘을 기울여야만 했다. 전쟁후유증은 조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中國은 明에서 淸으로의 王朝 교체, 日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로의 幕府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발발의 원인, 의병의 활동과 성격, 관군의 패배와 재정비 과정, 일본군의 보유병기 및 전술의 특성, 중국의 원병과견과 역할, 강화교섭, 조선 수군의 활동, 李舜臣·郭再祐·四溟堂 등 개인의 영웅적 행위, 일본의 국교재개 교섭, 피로인 송환 등이 중심이 되어 왔다.⁴⁾

1) 손승철, 「조선시대의 전쟁」, 『한민족 역대전쟁사』, 행림출판, 1992, 421쪽.

2) 李章熙, 『한국사』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6쪽.

3) 일본에서는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수를 2~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内藤雋輔, 『文祿・慶長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6). 반면 한국에서는 대략 10만 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의환, 『조선통신사의 발자취』, 정음문화사, 1985 ; 李元淳, 『壬辰·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奴隸問題-倭亂性格一貌-』, 『朝鮮時代史論集-안(한국)과 밖(세계)의 만남의 역사-』, 느티나무, 1993 ; 李塚衍, 『壬辰倭亂 捕虜實記研究』, 박이정, 1995). 한편 민덕기는 9~14만여 명(「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被虜人 규모와 기존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최호균은 4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최호균, 『壬辰·丁酉再亂期 人命 被害에 대한 계량적 연구』, 『國史館論叢』89, 國史編纂委員會, 2000).

4) 최근 임진왜란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는 민덕기, 「조선후기의 회고와 전망」,

하지만 조선을 침입한 일본군과 피점령지에서 조선인들이 일본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 대해서는 주로 점령지에서의 통치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일본의 장수들이 조선의 8도를 분담하여 각 지역 백성들을 위무하였으며, 이는 일본인 승려들이 담당하였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⁵⁾ 조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의병활동 또는 반란이라는 관점만이 주목되거나,⁶⁾ 일본군의 선무공작 결과 많은 백성들이 附倭行爲한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⁷⁾ 일본의 침략을 맞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펼친 백성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일본군 점령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쟁 중 침략군의 통치정책과 이에 대한 피침략국 백성의 대응, 그들이 가졌던 침략군에 대한 인식은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宣祖實錄』과 같은 正史類나 임진왜란 당시의 일들을 기록한 여타 문집의 경우, 대개 당시 전황이나 사회상만을

『韓日關係史研究의 回顧와 展望』, 국학자료원, 2002; 趙浚來,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觀點의 임진왜란사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5 등이 참고된다. 또 연구성과 정리는 박제광,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70~99쪽에 수록된 ‘壬辰倭亂 관련 論著目錄’을 참고하기 바란다.

- 5) 中村榮孝, 「豊臣秀吉の外征-文祿・慶長の役-」, 『日鮮關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1965; 北島万次, 「豊臣政權の外交折衝과 五山僧」,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1990.
- 6) 貫井正之, 「豊臣秀吉の朝鮮侵略戦争における朝鮮人民の動向について-特に朝鮮の義兵お中心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1, 朝鮮史研究會, 1965; _____, 「壬辰倭亂における義兵活動と民衆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朝鮮史研究會, 1979; 李章熙, 「亂中の 民間反亂」,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 7) 李章熙, 「왜란중의 사회상」, 『한국사』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상인층의 동향과 사족층의 대응」,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박제광,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영향」, 『軍史』4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1.

기록하여 일본군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平昌郡守였던 權斗文의 『南川先生文集』은 일본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천선생문집』을 이용한 연구는 권두문의 항일활동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⁸⁾

권두문이 남긴 기록은 1592년 8월 7일~9월 13일까지 총 3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육전에서 현직 관리가 포로가 되어 탈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인 만큼, 당시 전황이나 일본군의 침략정책, 또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물론 그의 기록은 평창과 原州라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일이지만,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권두문의 『남천선생문집』을 통해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반간시켜 피지배층을 일본군의 우호세력으로 삼으려 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피지배층이 일본군에게 협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음도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일본군의 전투력과 풍속, 조선인에 대한 강간이나 살인 등을 조선의 현직관료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權斗文과 『南川先生文集』

權斗文의 字는 景仰, 號는 南川, 本貫은 安東으로, 1543년(中宗 38) 掌樂院 主簿를 지낸 勸有年과 權克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권두문은 고려

8) 金永琪, 『太白抗戰史』, 江原日報社, 1986; 平昌文化院, 『平昌邑誌』, 1986; 이연재, 『강원도지방의 임진왜란사』, 병학사, 1988; 平昌郡, 『平昌郡誌』, 2003.

시대 檢校大將軍 軍器監을 지낸 檢校公 權倜의 11세손이다. 7세조 權定은 左司諫을 지내다 李成桂가 朝鮮을 개창하자 官職을 버리고 낙향하였다.⁹⁾ 하지만 1406년(太宗 6) 권정은 知司諫院事로 태종이 세자에게 양위하는 것을 만류하였고,¹⁰⁾ 1408년에는 태종이 卒한 권정에게 賻儀하였다.¹¹⁾ 이므로 아 권정은 朝鮮개국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태종대에 다시 官職에 나갔던 것 같다.¹²⁾

<표 1>에 나타나듯이 권두문의 가문은 權曜대까지 是 꾸준히 출사했다. 하지만 5세조인 權景石은 官職에 나가지 못했다, 이때 安東에서 榮州로 이거

<표 1> 權斗文의 家系圖¹³⁾

權倜(檢校大將軍)	→ 權烈(禮賓同正)
→ 權守英(中郎將)	→ 權顯(府使)
→ 權定(知司諫院事)	→ 權曜(保寧縣監)
配宣城金氏(上護軍 紐의 女)	配春川朴氏(司直 震의 女)
	配榮川閔氏(中郎將 毅의 女)
→ 權景石	→ 權欽(長興庫令)
配德山宋氏(掌令 啓의 女)	配商山金氏(司正 禪陽의 女)
→ 權誠孫	→ 權譚
配達成徐氏(達陽君 處正의 女)	配襄陽尹氏(時佐의 女)
→ 權有年(掌樂院主簿)	→ 權斗文
配(權克常의 女)	配潘南朴氏(海의 女)
	副室信川姜氏(僉知中樞府事 希哲의 女)

9) 『南川先生文集』 卷4, 附錄 附三從弟亦樂齊墓碣銘
松京運乞有 思復齋諱定以左司諫 棄官歸山 至今稱其地爲棄仕里.

10) 『太宗實錄』 卷12, 太宗 6年 8月 甲辰.

11)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4月 壬戌.

12) 『安東權氏大同世譜』에는 태종대에 활약하고 있는 權定의 卒年이 그의 比문이나 行狀과 2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태종실록』에 등장하는 權정을 同名異人으로 추정하고 있다(안동권씨대중회, 『安東權氏大同世譜』 卷1, 2004, 991쪽). 하지만 필자는 『태종실록』에 나타나는 權정은 權두문의 7세조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한다.

13) 『南川先生文集』 卷4, 附錄 行狀; 『國朝人物考』 卷54, 倭亂時立節人 被拘人附 權斗文; 안동권씨대중회, 앞의 책 등 참조.

하였다.¹⁴⁾ 영주로 이거한 후에는 4세조인 權欽이 종5품인 長興庫舍, 부친이 종6품인 掌樂院主簿 등을 지냈다. 이로 보아 권두문의 가문은 크게 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주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在地士族 중 하나였던 것 같다.

권두문은 성질이 醇厚하며 기질은 장대하고 타고난 복과 후한 마음이 있으며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¹⁵⁾ 그 외 그의 초년시절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가문이 꾸준히 관직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家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다. 이후 권두문은 嘯臯 朴承任에게 학문을 배운 것으로 생각된다. 박승임은 권두문의 학문을 높이 칭찬하였고,¹⁶⁾ 권두문이 박승임의 제문을 지은 점¹⁷⁾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박승임과 권두문은 인척관계이며¹⁸⁾ 두 사람 모두 고향이 영주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권두문은 박승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박승임은 退溪 李滉의 제자로 영남 사람의 일익을 담당한 인물이다.¹⁹⁾ 박승임은 1540년 과거에 급제, 承文院·藝文館·承政院·弘文館 등에서 淸

14) 『(春睡堂)行狀』, 『虎口錄』, 正文社, 1992
侍直公始家榮川.

15) 『南川先生文集』卷4, 附錄 師友錄
性質醇厚 氣度魁梧 福德兼隆 早歲騫勝.

16) 『南川先生文集』卷4, 附錄 行狀
公生而有俊才 讀書倍文詞華夙成 嘯臯朴先生承任 嘗極稱之.

17) 『嘯臯先生文集』附錄 下, 祭文.

18) 권두문의 2남 權黑主는 박승임의 처가인 醴泉 權氏 가문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권두문과 박승임의 관계도>



19)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82쪽 참조.

宦職을 지냈다. 이후 1557년 尹元衡의 세도가 심해지자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연구에만 몰두하였다.²⁰⁾ 박승임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권두문의 나이는 15세였다. 아마도 이때 권두문이 박승임에게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권두문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일본군이 권두문의 2남 주에게 鶴峯 金誠一의 이름을 보여 주며 아느냐고 묻자, 주는 아버지의 벗이라고 대답하였다.²¹⁾ 이 같은 사실은 김성일의 문집에도 기록되어 있다.²²⁾ 따라서 박승임이 이황의 문인이었고, 이황의 수제자인 김성일과 권두문이 서로를 알고 있었던 만큼, 권두문의 학문은 이황을 계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권두문은 1572년 春塘臺試에서 丙科로 급제, 校書館校檢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권두문은 司憲府監察, 成均館典籍, 刑曹正朗, 淸道郡守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 3월에는 平昌郡守로 임명되었다. 8월 11일 권두문은 일본군과 항전 끝에 포로가 되었다가, 9월 2일 원주에서 탈출에 성공하여 평창으로 돌아왔다. 이듬해에는 行在所에 이르러 奉常寺主簿, 환도할 때에는 御駕를 호종해 軍資寺僉正을 제수 받았다. 그 뒤 醴泉·珍山·永川·錦山 등의 군수, 1602년에 司贍寺正을 거쳐 杆城郡守 등을 역임했다. 이후 벼슬은 左通禮에 이르렀고,²³⁾ 1617년(光海君 9) 12월 18일卒하였다.²⁴⁾

앞에서 언급한 대로 권두문은 평창군수로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1592년 8월 7일 일본군이 평창에 진입하

20) 『國朝人物考』 卷22, 名流 朴承任.

21) 『南川先生文集』 卷2, 錄 虎口日錄 8月 20日 書金誠一名 曰此亦知之乎 曰是我父友也.

22) 『鶴峯先生文集』 附錄 卷1, 年報 54歲 壬辰亂初 平昌守權斗文被擄 撰虎口錄云 倭將源介緣攻陷平昌 擄斗文及其子 一日書問先生姓名 今作何官 答曰 見任征討在嶺南.

23) 『國朝人物考』 卷54, 倭亂時立節人 被拘人附 權斗文 참조.

24) 안동권씨대종회, 앞의 책, 103쪽 참조.

자, 권두문은 지형을 이용하기 위해 강 절벽에 있는 鷹岩窟로 옮겨 항전의 지를 불태웠다. 11일 드디어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권두문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둘째 아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고, 副室 姜氏는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포로가 된 권두문은 16일 일본군과 함께 평창을 떠나 延平을 지나 寧越에 도착했다.²⁵⁾ 다시 23일 堤川, 24일 新林·可利峴를 지나 原州에 이르렀다. 원주 관아 文書樓에 갇힌 권두문은 탈출을 위해 식량을 마련하고 벽을 뚫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9월 2일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틈을 타 권두문은 아들 주, 四山監役 李士岳, 中房京人 高彥英 등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다.

일본군이 평창을 공격부터 포로가 되어 탈출에 이르는 과정을 권두문은 ‘虎口日錄’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호구일록’ 외에도 권두문이 1593년 행재소에 이르러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의 구휼을 건의한 ‘詣海州行在所陳情疏’,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을 격퇴할 방법을 밝힌 ‘上號召使觀察使助防將書’ 역시 임진왜란과 관련해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의 글들은 권두문의 『南川先生文集』²⁶⁾에 수록되어 있다.

『남천선생문집』은 가내에서 전승되다 1864년(高宗 元年)에 간행되었다.²⁷⁾

- 25) 평창을 점령한 일본군은 8월 15일 선봉은 영월·酒泉으로 향했고, 본대는 16일에 이동하였다(이연재, 앞의 책, 121쪽 참조). 따라서 권두문은 본대와 함께 이동했던 것이다.
- 26) 현재 『남천선생문집』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韓國歷代文集叢書 2267, 景仁文化社).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영주에 살고 있는 권두문의 13세손인 權寧植氏를 방문, 『남천선생문집』을 입수하였다. 필자의 확인 결과 이 책은 1997년에 영인된 것과 같은 판본이다.
- 27) 현재 『南川先生文集』의 간행연도는 173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1, 505쪽). 그런데 『남천선생문집』의 序文을 쓴 柳尋春은 1762년에 태어나 1834년에卒한 만큼 이는 잘못된 추정이다. 특히 『남천선생문집』에는 10세손 權東轍의 간행 발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前所欲成而未成者 僅若干銅 今甲子乃印”이다. 권동철은 安東權氏 檢校公派 31세손으로 字는 由應 號는 龜厓이며, 1807년에 태어나 1877년 졸하였다(안동권씨대종회, 『安東權氏大同世譜』 32, 2004, 827쪽). 발문을 쓴 권동철이 생존해 있던 1807~1877년 사이의 갑자년은 1864년이다. 또 권동철의 발문과 함께 1813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附三從弟亦樂齋墓碣銘’이 함께 수록된 점 등을 염두에 두면 『남천선생문집』의 간행연도는 1864년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책의 구성은 4권 2책으로, 1권에는 五言絶句, 五言四韻, 五言長篇, 七言絶句, 七言四韻 등의 詩와 輓詞, 2권에는 虎口日錄, 3권에는 疏, 箋, 書, 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4권은 附錄으로 行狀, 墓碣銘, 戶口日錄跋, 書戶口日錄後, 師友錄, 見聞錄, 康節婦閨閣實錄, 士林呈文, 鷗湖書院奉安文, 常享祝文, 書戶口日錄後詩, 贈行詩, 謹閱虎口錄敬次木齋洪公韻, 輓詞 등이 실려 있다. 또 책머리에 柳尋春의 序文이 있고, 책 뒤에 附三從弟樂齋墓碣銘과 10세손 權東轍의 刊行跋文이 별도로 부기되어 있다.

3. 日本軍의 平昌攻擊과 占領政策

권두문이 평창군수로 임명된 것은 1592년 3월이었고, 약 한달쯤 지나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권두문이 4월 稚岳山에서 일본군의 격퇴를 염원하는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²⁸⁾ 일본군 침략 후 바로 전쟁발발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 강원도에 침입했던 것은 6월이며,²⁹⁾ 평창에 나타난 것은 8월 7일경이었다. 그렇다면 권두문에게는 적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침입을 대비해 평창은 100여 명의 군사와 石車만을 준비했을 뿐이었다.³⁰⁾ 이러한 사실은 평창의 경우 일본군의 침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군의 침입으로 도성이 파괴되고 국왕이 播遷하는 등 불리한 전황 속에서 권두문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조선 정부의 판단착오와 당시 평창은 전쟁준비

28)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9月 1日

進賜四月 稚岳山堂祭時 吾爲都色也 所謂堂祭爲倭變祈禱之國祭.

29) 『宣祖修正實錄』卷26, 宣祖 25年 6月.

30)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抄兵百餘人 結爲心腹 先以防牌 設柵於外臺 多置軍器 列懸石車 以備禦敵.

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자. 히데요시는 1587년 3월 쓰시마 도주에게 조선 국왕을 來朝케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선과 잦은 왕래가 있었던 쓰시마는 그것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우선 인질과 공물을 바치게 한다는 대안으로 히데요시를 설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히데요시가 이를 거절하자, 쓰시마 도주는 히데요시의 國王 등극을 알리고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가짜 일본국왕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³¹⁾ 1587년 9월과 12월, 1589년 6월 등 3회에 걸쳐 쓰시마는 사신을 파견하여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의 변화를 감지한 조선은 1590년 통신사를 파견, 일본의 정세를 살폈다. 통신사 일행은 귀국 후 북명에서 黃允吉·許箴 등은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침략가능성을 부정했다.³²⁾ 이처럼 당시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전쟁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다.

통신사 귀환 후 쓰시마 도주 소우 요시토시(宗義智)는 일본이 명과 통호하는데 조선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선에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다. 이후 일본 선박의 왕래가 없었고, 倭館에 머물던 일본인은 모두 돌아갔다.³³⁾ 또 명은 류구(琉球), 푸젠(福建) 출신 客商 陳申과 사츠마(薩摩)에 머물고 있던 許儀後 등을 통해 조선이 嚮導가 되어 일본과 함께 명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명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자 조선은 사신을 명에 파견하여 이를 해명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³⁴⁾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당시 조선은

31) 中村榮孝, 앞의 글, 85~86쪽 참조.

32) 『宣祖修正實錄』卷25, 宣祖 24年 3月.

33) 『宣祖修正實錄』卷25, 宣祖 24年 5月.

34) 임진왜란전 조선항도론을 둘러싼 조선과 명의 갈등 및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孫種聲, 「壬辰倭亂時 對明外交」, 『國史館論叢』14, 國史編纂委員會, 1990; 趙浚來, 「明軍의 出兵과 壬亂戰局의 推移」, 『韓國史論』22, 國史編纂委員會, 1992; 北島万次, 「壬辰倭亂期の朝鮮と明」, 『アゼアなかの日本史』II, 東京大學出版會, 1993; 趙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조선 역시 일본의 침입을 예상하였다. 다만 그 규모는 1만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며, 침략 지역도 全羅道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³⁵⁾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 1591년 7월 영·호남지역 성의 수리 및 증축, 무기 점검과 함께 무신 중 뛰어난 재질이 있는 자는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발탁하였다.³⁶⁾ 1592년 2월에는 申晄을 경기도와 황해도에, 李鎰을 전라도와 충청도에 파견하여 병비를 순시케 했다.³⁷⁾ 이로 보아 조선은 일본의 침입을 예상했지만 왜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경기·황해·충청·전라 등 해안지역 방어만을 강화했던 것이다. 때문에 평창처럼 내륙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일본의 침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준비가 없었다고 해도 적의 침입 소식을 들은 후 3개월이면 어느 정도의 대비는 가능하다. 일본군의 침입 열흘 후 이미 경상도에서는 義兵의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³⁸⁾ 평창의 경우 100여 명의 군사 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당시 평창은 호구와 전결의 감소 등으로 황폐화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세종대 평창은 233호 501명, 85명의 군사, 11결의 논과 1,067결의 밭이 있었다.³⁹⁾ 하지만 전쟁 발발 약 30년 전 평창군수였던 楊士彦의 상소에 의하면 평창은 46호, 1백결의 전지에 불과했다.⁴⁰⁾ 1583년 북방강화를 위해 병사를 선발할 때, 강원도는 漕運과 支供에 시달린다며 병사선발을 면제했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⁴¹⁾ 전쟁 직전 김성일이 관동지역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백성들이 영남의 산

援來, 「왜란의 발발과 경과」,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최소자, 「壬辰·丁酉 倭禍와 明의 對朝鮮 關係」, 『명청시대 중·한관계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35) 『宣祖實錄』 卷23, 宣祖 22年 8月 丙子.

36) 『宣祖修正實錄』 卷25, 宣祖 24年 7月.

37)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2月.

38) 『宣祖實錄』 卷27, 宣祖 25年 6月 丙辰.

39) 『世宗實錄』 卷153, 地理志 江陵大都護府 平昌郡.

40) 『明宗實錄』 卷27, 明宗 16年 2月 丁未.

41) 『宣祖實錄』 卷17, 宣祖 16年 6月 辛酉.

속으로 피하고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⁴²⁾ 전쟁전 강원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46호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여 명의 군사를 모았다는 것은, 평창에서 동원 가능한 병력은 모두 모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성 점령 후 일본군은 八道國割이라 하여 조선의 팔도를 일본군 편성에 따라 분담하였는데,⁴³⁾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의 담당 지역이 바로 강원도였다.⁴⁴⁾ 때문에 요시나리가 평창을 공격한 것이었지만, 권두문은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른 것인지, 또 적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⁴⁵⁾ 일본군이 조선의 각 지역을 서로 나누어 공격에 나선 것을 권두문이 알게 된 것은 포로가 된 이후였다.⁴⁶⁾ 이러한 사실은 전쟁 당시 일본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정부와 각 지역, 그리고 지역간 연락체계 역시 두절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2) 『鶴峯先生文集』卷3, 筭 請停築城仍陳時弊筭

關東則又地瘠民貧 板築之役 尤所難支 故通民纍纍於嶺南山郡者 不可以數計.

43) 中村榮孝, 앞의 글, 120~121쪽 참조.

44) 그 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평안도,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함경도,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황해도,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충청도,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전라도,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경상도,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군이 경기도를 담당하였다.

45) 모리 요시나리는 2,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군의 제4번대로 출진하였다. 요시나리는 4월 17일 金海에 상륙한 이후 昌寧·星州·知禮·金山을 지나 秋風嶺을 넘어 永同으로 나아가 淸州城을 함락하고 경기도로 진향하여 서울에 이르렀다(李章熙, 『倭亂과 서울』,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42쪽 참조). 서울을 떠난 요시나리 군은 鐵原·金化를 거쳐 通川으로 향하였다. 6월 5일 淮陽을 점령한 후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경계인 鐵嶺을 점령하고 安邊으로 들어갔다(北島万次, 『강원도에서의 임진왜란』, 『조선왕조실록 속의 한국과 일본』, 京仁文化社, 2004, 100~120쪽 참조). 이어 안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三陟을 점령한 뒤 경상도로 들어갔다가 白卜嶺을 넘었다. 이후 旌善과 寧越에 침입하고 또 다시 경상도로 향하였다가, 安集使 金玠에게 쫓겨 평창에 들어왔다(李燭錫, 『壬辰戰亂史』上, 新現實社, 1977, 489쪽 참조).

46)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23日

彦英問通事倭曰 何不留 此答曰 此邑乃他道非所營 故過云云.

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권두문은 鷹岩窟에 피난민과 관리의 가족을 수용하고,⁴⁷⁾ 일본군과의 항전을 준비하였다.⁴⁸⁾ 권두문이 이곳에서 일본군과 맞서려 했던 것은 산이 높고 험하며 절벽 아래 강이 놓여 있다는 지형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⁹⁾ 즉 권두문은 堅壁清野 전술로 일본군을 격퇴시키려 했던 것이다.

견벽청야란 들관이나 민가의 곡식을 모두 옮기고 험한 지형에 의지하여 지키다 적이 군량이 떨어져 물러날 때 공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전술이다. 임진왜란 중 일본군은 鳥銃을 중심으로 한 야전에 능한 만큼 견벽청야 전술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산성수축이 이루어졌고, 丁酉再亂 때에는 청야작전을 펼치기도 했다.⁵⁰⁾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권두문이 일본군의 침입을 맞아 험한 지형으로 옮겨 항전의 의지를 불태운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응전 준비를 마친 후 권두문은 8월 8일과 9일 군사들에게 잠복하여 있다가 활로 일본군을 공격할 것을 명하였지만, 모두 겁을 먹고 그냥 돌아왔다. 10일에는 일본의 척후병들이 나타나자 활을 쏘아 그들을 쫓았다. 하지만 이때 권두문은 자신이 거느린 군사들이 “태평성대에 훈련을 하지 않아 적만 보면 미리 겁을 먹고 떨기만 한다”⁵¹⁾며,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산이

47) 위와 같은 책

下窟即 避亂諸人所入也 上窟即 衙眷所入也.

48) 권두문이 응암굴로 들어간 것은 魯城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성이 함락된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平昌邑誌』, 平昌文化院, 1986, 203~204쪽; 이연재, 앞의 책, 119쪽). 하지만 ‘虎口日錄’에 의하면 일본군이 평창 경내로 오자 즉시 응암굴로 옮겨 일본군에게 항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노성에서의 전투는 권두문의 항전 이후 덧붙여진 이야기인 것 같다.

49) 『南川先生文集』 卷2, 錄 虎口日錄

郡南十五里 許井洞之下 有千仞絕壁 削立如屏 下臨溪潭橫截.

50) 임진왜란기 산성수축과 견벽청야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李章熙, 『왜군 격퇴의 전략·전술·육전-』,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5; 柳在春, 『14~17世紀初 韓日兩國의 築城 動向』, 『近世 韓日城郭의 比較研究』, 국학자료원, 1999; 李章熙, 『山城修築과 堅壁清野』,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없음을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본군이 공격해 오자, 권두 문은 강하게 항전하다가 결국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일본군은 평창 점령 후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조선인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았다. 하지만 양반을 제외한 하급관료와 백성들은 모두 방면하였다.⁵²⁾ 그런 만큼 포로가 된 양반층은 모두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옥 내에서 서리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었다.⁵³⁾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양반만을 골라 살해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문이 퍼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일본군의 통치논리와 양반층의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양반들은 침략자인 일본군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비록 전쟁초기의 일이지만 전·현직 관료로 일본에 협조한 사람은 工曹參議를 지낸 成世寧과 그 동생 成世康뿐이라는 기록과,⁵⁴⁾ 전후 병란을 맞아 사족이 모두 절개를 지켰다는 평가⁵⁵⁾는 이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일본군은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양반은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또 일본군은 전쟁 원인을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학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전했다.⁵⁶⁾ 이처럼 일본군은 지배층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하급관료나 백성들은 석방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은 고을 내에서 영향력이 많은 監考·胥吏層을 회유하였고,⁵⁷⁾ 이들로 하여금 실무를 처리하게 했다.⁵⁸⁾ 결국 일본군은 양반 등 지

51)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10日
昇平之餘 人不習戰 見賊先恟 蒼黃畏縮 坐失機謀.

52)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13日
賊陣移去之時 擄入常人例 皆放送云.

53) 위와 같은 책, 8月 22日
賊徒知爲兩班 則必殺之 故換着常者之拘皮耳掩 又以紫長衣 請換木綿長衣 於德非 德非曰 何必換爲吾輩 則賊必放送 而兩班則不放.

54) 『宣祖修正實錄』卷26, 宣祖 25年 5月.

55) 『仁祖實錄』卷14, 仁祖 4年 11月 辛卯.

56) 『宣祖實錄』卷26, 宣祖 25年 5月 壬戌.

배층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피지배층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행정실무에 밝은 서리층에게 지역 행정을 위임시켜 점령지를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두려했던 것이다.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백성들을 회유하는 격문을 붙였는데,⁵⁹⁾ 그 내용은 대개 “郡縣의 백성들은 남자는 보리를 거두어들이고, 여인은 길쌈을 하면서 제각기 가업을 돌보라. 군사들이 법을 범하면 극형에 처하겠다”⁶⁰⁾와 같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고 관곡을 분급 하면서 수세액을 1/3로 낮출 것을 약속하였고, 백성들은 점차 일본군의 점령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⁶¹⁾ 會寧에서 鞠景仁이 臨海君과 順和君을 일본군에게 넘기자 일본군이 明川 이북의 8鎮을 叛民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것이나,⁶²⁾ 평안도에서 반민들이 수령이나 양반들을 사로잡아 일본군에게 넘겼던 사실은,⁶³⁾ 일본군의 점령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한성수복 후 의병을 죽인 자, 방화를 선동한 자, 능침을 범한 자 외의 附倭者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⁶⁴⁾ 피점령지에서 일본군에게 협조한 자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평창 점령 후 요시나리 역시 江原監司를 자칭하면서 격문을 붙였고,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현혹되었다.⁶⁵⁾ 평창의 서리들 역시 일본군에게 협조하였고, 이를 본 권두문은 통분하였다.⁶⁶⁾ 감옥에 있던 양반들은 신분을 속이

57) 박재광, 앞의 글, 2001, 266쪽.

58) 中村榮孝, 앞의 글, 135쪽 참조.

59) 조선의 백성들을 회유하는 격문은 경기도 덴케이(天荊), 강원도·함경도 是琢, 전라도 에케(惠瓊), 경상도 덴케이와 俊岳 등 모두 일본군을 종군한 승려들이 작성하였다(北島万次, 앞의 글, 147~156쪽 참조).

60) 『宣祖實錄』卷26, 宣祖 25年 5月 己巳.

61) 김성우, 앞의 글, 334쪽 참조.

62) 『宣祖修正實錄』卷26, 宣祖 25年 7月.

63) 『宣祖修正實錄』卷26, 宣祖 25年 9月.

64) 『宣祖實錄』卷39, 宣祖 26年 6月 丁酉.

65)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9日

倭將豊臣吉成 自稱江原監司 所經之邑 必出先文 山谷愚氓 靡然從之 可痛也.

기 위해 백성들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권두문 역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서리들에게 옷을 바꾸어 줄 것을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⁶⁷⁾ 이 같은 모습은 양반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지배층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군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군의 점령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평창의 하급관료나 백성들 모두가 일본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 중 상당수는 단지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군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호구일록’에는 일본군에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국가에 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에 저항하는 예들이 나타나고 있다.

1592년 5월 13일 히데요시는 ‘高麗國八州之石納覺之事’를 하달, 조선 팔도에 조세를 할당하였다.⁶⁸⁾ 이에 따라 함경도를 점령한 일본군은 조세수취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각 지방의 서리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받아 문서로 만들었다.⁶⁹⁾ 이는 평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군은 평창 점령 후 공물 목록을 필사토록 했는데, 이 일을 맡게 된 인물은 郡吏 嚴守⁷⁰⁾이었다. 그는 글자를 잘못 쓰거나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엄수일은 그 목록은 옛날 것이라 소용없음을 여러 번 설명하여 결국 이 일을 중단시켰다.⁷⁰⁾ 즉 엄수일은 일본군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66) 위와 같은 책, 8月 18日

平昌吏四五人 亦來服役於賊中 吾此視之 雖憤奈何.

67) 위와 같은 책, 8月 22日

平昌吏輩言曰 汝輩中能有解裙 救我者耶 我家聞之 寧無報乎 吏輩莫有應者.

68) 이상훈, 『임진왜란 중 경남 서부지역의 전투지역 고찰』,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4, 146~147쪽 참조.

69) 中村榮孝, 앞의 글, 135쪽 참조.

70) 『南川先生文集』 卷2, 錄 虎口日錄 8月 20日

通事倭 持本郡所上 土山貢物案上樓上 令嚴守一謄寫空冊 守一拙寫字書 若或不正 則輒以笞杖猛打其背 守一呼泣 且書不勝其苦 守一曰 何不持往本冊 而必以謄寫耶 倭曰 本冊當留上本郡將 以新寫者 持往行次矣 守一苦於盡寫 哀乞於倭曰 舊案中如彼樸 子石耳等 不關之微物則滅除 不必書之如何強 而後許還上冊.

못했지만, 일본군이 원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는 것은 막았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군이나 일본군 모두 군량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명 참전 이전까지 조선은 調度使에 의한 모곡활동 외에 지방 士民들로 구성된 募粟활동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마련된 義穀은 해로를 통해 행재소로 운반되었다.⁷¹⁾ 하지만 명군 참전 후 조선은 명군의 군량까지 책임져야만 했다. 물론 명은 참전 당시 무기와 군량미를 조선에 보냈다. 하지만 이는 義州까지만 전달되었던 탓에, 조선은 명군에게 적시에 군량미를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만 했다. 결국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 초기 많은 공을 세운 의병들을 군량미 수송에 동원했다.⁷²⁾ 또 納贖, 屯田 등을 통해 군량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군량부족 현상은 일본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해전에서의 연속된 패배와 義兵 활동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점령지 백성들을 군량수송에 동원하였다. 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해오면 풀어주겠다고 하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다.⁷³⁾ 그 외 일본군 이동시 짐을 진 사람의 반 이상이 조선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⁷⁴⁾ 일본군은 군수물자 수송에도 조선의 백성들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군은 군량 보충과 군수물자 수송 등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조선의 백성을 이용했지만, 이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었다. 머리를 깎고 일본 복장을 한 奴 希守가 권두문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⁷⁵⁾ 자신의 행동을 떳떳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71) 李章熙, 『糧餉調達の 實相』,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227쪽 참조.

72) 『宣祖實錄』卷34, 宣祖 26年 正月 丙寅.

73)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27日

賊分送擄人 于靈原輸致軍糧 又書給牌子 招集州民 授牌子出去者 拘留其妻子 故莫敢逃避 勸率男女老弱 而至各給章標還放 愚民爭持 桃栗西瓜 納之倭前 甚可痛也.

74) 위와 같은 책, 8月 23日

輕重負載 或先或後 半是我國人之爲 倭形者 喧嘩笑語 多我國聲音.

다. 이들은 일본군이 처자식을 인질로 삼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군이 원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일본군에 대한 원성이 높아져 급기야 다시 군량수송을 맡길 경우 탈출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⁷⁶⁾ 히데요시는 조선출병을 국내 통일전쟁의 연장선 상에서 생각했기 때문에,⁷⁷⁾ 조선을 점령하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행복하고 조세를 바칠 것으로 예상했다.⁷⁸⁾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조선의 백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하긴 했지만, 그것이 일본군이 생각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군의 침탈이 가혹해지자 점점 일본군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권두문이 원주에서 탈출하였을 때 보인 백성들의 태도 역시 일본군이 아닌 조선의 관료에게 호의적이었다. 탈출을 준비할 때 길을 알려주고,⁷⁹⁾ 일본군의 경계 상황을 전해 주었다.⁸⁰⁾ 또 서리들은 비상식량을 마련해 주었다.⁸¹⁾ 이처럼 권두문 일행이 탈출할 것을 알았지만, 일본군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출을 도왔던 것이다. 탈출 후 일본군의 추적이 있었지만, 역시 신고한 조선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산속에 모여 살던 피난민

75) 위와 같은 책, 8月 16日

奴希守削髮爲倭形 騎馬立路傍 目適及之 各自呼泣.

76) 위와 같은 책, 9月 1日

連日以尾鬣之村民 連續入現 而苦於運米及他役 率多怨讟 若出則不復還入 茄瓜及新小豆菘豆 督令輸入於外處 亦甚怨之.

77) 田中健夫, 「朝鮮王朝朝 韓·日交流の性格」, 『韓·日關係 學術會議 發表要旨』, 韓國史學會, 1991, 83쪽.

78)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113쪽 참조.

79)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9月 1日

店守潘爲吾等曰 今日欲出不復還等 曰我輩亦欲出之 汝須指路 店守曰 堤川之路無賊云.

80) 위와 같은 글

小紙裏以桃栗 使德守過廳下 而投贈之 其書曰 自鴨脚樹下從貳衙後出 南山之外 無賊云云.

81) 위와 같은 책, 9月 3日

出剪袋魚太各嚼一掬 又啖生栗數個 太則在寧越時嚴守一所與 栗則州吏元店守張同李德守等所與也.

들은 권두문 일행에게 식사와 패랭이·짚신 등을 제공하고, 일본군의 추격로와 이에 따른 탈출로를 알려주었다. 求利坡라는 마을에서 권두문은 林元의 집에서 이들을 머물렀다. 임원은 65세의 퇴역 歩兵으로, 세 명의 아들·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피란민들에게 식사와 의복을 제공하고 길을 알려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권두문 일행 역시 임원의 도움을 받았다. 임원의 집에서 권두문은 포로가 된 후 처음으로 고깃국에 밥을 먹고 온돌에서 잠을 자는 등 오랜만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권두문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임원은 짚신과 식량을 주며 驛卒 朴連에게 호송을 부탁할 정도였다.⁸²⁾

평창을 점령한 일본군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양반층은 배제하고, 피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하급관료와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서리들을 통해 평창군의 행정을 파악하려 했고, 백성들은 부족한 군량보충과 군수물자 수송에 동원하였다. 그런 면에서 일본군의 점령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 조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군 점령 후 생활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군의 침탈이 가혹해지자 일본군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다. 사실 하급관료와 백성들이 일본군에게 협조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권두문 일행이 탈출할 때 보여준 조선 백성들의 태도는 일본군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군이 조선점령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점령지에서의 통치정책의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일본군이 점령지를 근거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2) 위와 같은 책, 9月 5日~7日 참조.

4. 日本軍에 대한 認識

임진왜란 발발 전 조선은 일본의 군사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成宗은 1443년(世宗 25) 正使 卞孝文의 子弟軍官으로 일본을 다녀온 바 있는 李仁睦에게 일본에 용감한 병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인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투면 반드시 조선인이 이긴다고 답하였다.⁸³⁾ 이러한 생각은 전쟁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다. 南冥 曹植이나 李俊民은 일본인은 短劍을 들고 맨발로 달리는 것은 잘하지만 다른 장기가 없는 만큼 조선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⁸⁴⁾ 이처럼 조선은 임진왜란전 일본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 뿐 아니라, 군사력 역시 조선이 월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본군의 침략전 권두문이 일본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일본군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포로가 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본군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권두문은 일본군은 평상시에는 장수와 병사가 친구처럼 지내지만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강인한 군사가 된다고 하며, 일본군이 정예함을 높이 평가하였다.⁸⁵⁾

일본군의 행군 모습에 대해서는 砲手가 선두에 서는데 군사는 백여 명을 넘지 않으며, 창점을 가진 군사는 많지 않고 활을 지닌 군사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크게 벌려 허장성세를 보이는데 갑옷 뒤 구멍에 깃발을 꽂는다고 하였다. 또 장수는 갑옷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였다.⁸⁶⁾ 일본군의 이러한 모습은 西厓 柳成龍도 지적하고 있

83) 『成宗實錄』卷101, 成宗 10年 2月 丙申.

84) 『宣祖實錄』卷39, 宣祖 26年 6月 庚子.

85)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29日

其將卒之間 居常言笑戲謔 初若無等級 及其出令 應行如響 上下嚴肅 一軍生風.

86) 위와 같은 책, 8月 23日

每於行軍時 必先以砲手爲先鋒 而步行之 厥數未滿百輩 次以鎗劍之軍 亦不衆多 持弓矢者絕

다. 유성룡은 일본군에 대해

왜군은 군대를 나눌 때마다 반드시 다섯으로 만든다. 일진이 적을 당하면 뒤에 이진은 좌우익을 벌려 그들을 포위하며, 좌우 두 머리가 적을 당하면 또 뒤의 두 진이 그 바깥으로 돌아 나와 언제나 우리 군사로 하여금 그들의 포위 속에 들어 있게 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눈이 어지럽고 마음속으로 겁이 나게 만들어 싸워 보지도 않고 먼저 지절로 흩어지게 하였다. 왜군은 가는 곳마다 이런 술법을 써 승리를 취하는데, 우리 장수들이 끝내 깨닫지 못하고 매번 군사를 한 곳에 모아 놓았다가 함께 나아가 패전만 당하였다.⁸⁷⁾

라고 하여, 진법에 매우 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임진왜란 발발 전 일본의 침략가능성을 명에 알렸던 허의후 역시 일본군은 병사 1명이 깃발 10개를 담당할 정도로 깃발을 많이 벌이는 등 허장성세로 적의 사기를 제압한다고 하였다.⁸⁸⁾ 이처럼 당시 일본군은 적을 속이는 진법과 많은 깃발을 통해 군사의 수를 속이는데 능했다. 따라서 일본군이 행군시 군사가 적지만 깃발로 허세를 부리며, 장수는 가운데 섞여 복병이나 기습에 대비한다는 권두문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대해 권두문은

뜰 한쪽에 벽돌을 모두 주어내고 가지런히 柵을 짓는데 3면은 낮은 담

無 而僅有乃長木弓也 旗則衣甲者負持之 甲背有空 空中插旗竿 繫繩於竿杪 而手捧之 馬軍亦皆着甲胄假面大小二劔 則擊 一軍無不佩也 又大張旗幟威儀有 若將帥行次者 然此則虛設也 倭魁則單騎微服間於行伍

87) 『西厓先生文集』 卷16, 雜著 倭知用兵

凡分軍必爲五 一陣當敵後 二陣張左右翼 圍繞之左右 而頭遇敵 則又後二陣 繞出其外 常使我軍 在其圍中 而使之目眩心怯 故不戰而先自潰散 到處用此術以取勝 而我國之將 終不悟 每聚軍一處 俱進取敗.

88) 『墳尾錄』 第3, 甲午日錄 雜錄 陳日本之詳

多張旗幟 以壓敵氣 一兵十旗者有之 (….) 虛張聲勢 以使人驚.

만큼 난간을 높이 하여 그곳에 크고 작은 깃발을 세운다. 언뜻가에도 책을 짓고 난간을 만들어 낮에는 긴 白旗 20개를 꽂아두고 밤에는 거두어들인다. 조총과 긴 창을 밤에는 거두어 동상방 대들보 아래 시렁을 만들어 걸고 아침이 되면 나누어 준다. 큰 칼과 작은 칼은 앓을 때나 설 때나 움직일 때 항상 소지한다. 담 안에서 바라보기 좋은 장소에 큰 나무로 망루를 만들어 정해진 수의 왜병이 올라가 지키며, 그 밖에 매복하는 병사와 서로 암호로 통하는데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나는 곳마다 모두 그러했다.⁸⁹⁾

라고 설명하였다. 위 글을 보면 일본군의 진지는 매우 견고하며, 병장기를 소중히 관리하고, 수비가 매우 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의 이러한 모습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마다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사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전투를 벌여 온 만큼 축성이나 진지구축을 통한 방어전술이 매우 능했다. 유성룡은 倭城에 대해

거듭 차곡차곡 쌓아, 비록 한 겹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또 한 겹이 되고, 성안에 꼬불꼬불한 좁은 길이 많아 사람이 좌우의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하며, 좌우에 구멍을 뚫어 대포와 소포를 설치하니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성 쌓는 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기가 극히 어렵다.⁹⁰⁾

라고 하여, 일본의 축성기술을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던 姜沆 역시 일본의 성은 기초가 튼튼하고, 성 안에 군량과 군기 창고가 있

89)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26日

庭中磚石 一邊盡掇 移築干列 柵下三面 如短牆焉 大小旗旌皆建 干柵池邊 亦設短欄 列植長白旗二十餘 夜則捲入 日出還建 鳥銃長鎗 夜皆收入 東上房樑下作架滿插 朝必分授散出之大小二劍 則出入坐臥動輒各佩 每夜庭牆內通望處 構結高木如樓 定數倭登守 與諸外伏兵相應 驚叫終夜不止 此則所經皆然.

90) 『西厓先生別集』卷4, 雜著 倭善守成

重重疊疊 一重雖不守 而又有一重 城內多委巷曲逕 使人不知所之 左右鑿穴 安大小砲 與中原及我國城制絕異 故攻之極難.

으며, 성에는 포혈이 있고, 성 밖에는 참호를 두고 참호 밖에 다시 목책을 설치하여 방어에 매우 유리하다고 하였다.⁹¹⁾ 때문에 조선은 종전 후 北道の 성체를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개축토록 하였다.⁹²⁾ 그런 만큼 일본군이 견고한 진지구출을 통해 엄중한 수비에 임한다는 권두문의 평가 역시 정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권두문은 일본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한 것을 토대로 조선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號召使·觀察使·助防將 등에게 알렸다. 즉 권두문은 밤에 기습공격을 하면 일본군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군은 낮에는 병사를 4곳으로 나누어 지키지만, 밤이 되면 모두 잠을 자기 때문이다. 비록 불을 켜 두지만 이는 경계를 위한 것일 뿐이며, 밤에는 모든 무기를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적은 군사로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⁹³⁾ 또 적장은 東上房, 부장은 西上房이나 郎廳房, 나머지 장수들은 民家에서 자는데, 장수들이 자는 곳에는 깃발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려, 적장이 머무는 곳을 집중 공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⁴⁾ 권두문은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조선이 전쟁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 일본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본군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권두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상

91) 『看羊錄』, 倭國八道六十六州圖

爲城邑 必於獨山之頂 江海之濱 夷山之巔 而斷削其四面 使猿狖不得上 其城基廣而上尖 四隅設高樓 最高者三層 主將居焉 軍糧軍器之庫 皆設於樓中 開一門一路 以通其出入 門內多積沙石 城外設長垣 高可一丈許 垣中數步 設砲坎 垣外鑿城壕 深可八九丈 引江水以注之 壕外又設木柵 濱江海處 舳艫相連 城底民丁 日爲水戲 精勇之士環城而居之.

92) 『宣祖實錄』卷127, 宣祖 33年 7月 乙丑.

93) 『南川先生文集』卷3, 書 上號召使觀察使助防將書

經累日審觀形止 思其可擊之道 則夜擊爲上策 何者晝 則分兵四出 作賊於處處 日入而還擧軍 困宿 賊魁所在傍兵 亦小內則官府 外而閭閻 雖終夜設火 只備警而已 鐵丸鐵甲昏 則收入 鎗劍亦藏內處..

94) 위와 같은 글

魁首則在東上房 副則在西上房而郎廳房及各處 亦皆充滿 其餘諸將 叢處閭閻 建旗之家 則諸將所在也 此亦不可不知幸 速成神謀快滅.

적인 전투로는 조선이 쉽게 승리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야간기습과 같은 전술을 펼쳐야만 일본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권두문은 1592년 8월 11일~9월 2일까지 총 21일 동안 일본군과 함께 생활했다. 현직관료로 일본군과 항전 끝에 포로가 되었던 만큼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일본군의 전투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권두문은 이국적인 일본군의 생활상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권두문은 일본군의 식습관에 대해 장수의 경우 나무 그릇에 쌀밥과 국, 채소 그리고 구운 생선을 반찬으로 먹는데 2·3 또는 4·5회 반복하여 먹으며, 마지막으로 더운물을 마신다. 또 낮에는 수박, 복숭아, 밤 등을 간식으로 먹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기와 술은 먹지 않는다고 하며, 그들의 식습관이 깨끗하고 간편하다고 평하였다. 반면 죽은 소를 베어 먹으려는 조선인 포로에게 침을 뱉고 지팡이로 때려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은 소고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⁹⁵⁾

일본에서도 지배층은 약용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육식을 하였다.⁹⁶⁾ 하지만 일반적으로 네발 달린 짐승의 고기는 기피 대상이었고,⁹⁷⁾ 경작용 가축인 소나 말의 식용은 금기시 되었다.⁹⁸⁾ 특히 가축의 피, 내장, 지방 등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⁹⁹⁾ 때문에 일본군은 조선인이 소고기를 먹는 것까지도

95)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16日

賊魁朝夕之供 則極潔而簡 一倭先以小盤盛 一紅漆器如鐘子 大者排於倭魁 及左右侍坐者之前 又一倭以木器之如斗樣 而稍長者盛 白飯盆以油紙 奉置於坐側 小倭一人持出將 前曾排之空木器 以大木匙分盛 少許以進之 倭魁先飯 迄以木匙 次進羹如是 次進沉膏亦如是 次進海魚數片之蒸熟者亦如是 吃盡復進盡 如前凡飯與饌之進 惟取其間不拘 其數或二三或四五度 隨其量之大小 最後進湯水而撤 當午則或進西瓜數片 或進桃栗數箇 而已而止 酒與肉饌 則未之見也 有一擄人 見路傍牛斃 割持塊肉 其計將欲炙食 賊徒見之 唾鄙而怒叱 以杖打其背 使之速投去 必是倭俗不喜啖牛也.

96) 정성일, 『통신사의 식탁에 개고기가 올랐다』,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근세 -』, 경인문화사, 2006, 404쪽 참조.

97)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 논형, 2005, 221쪽.

98) 우메사오 다다오(梅棹忠夫) 엮음, 김양선 옮김, 『일본인의 생활』, 해안, 2001, 69쪽.

강력히 제지했던 것이다. 물론 권두문은 이러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군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조선의 풍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夷狄視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들의 식습관이 매우 정결하다고 평가하였다. 1617년 回答兼刷還使로 일본을 방문했던 李景稷 역시 일본의 반찬이 극히 정결하다고 평한 것을 보면,¹⁰⁰⁾ 당시 조선은 일본의 음식문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일본인의 잠자리에 대해서는 침상에서 자며 온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⁰¹⁾ 일본인이 온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에 끌려갔던 鄭希得은 따뜻한 곳에 거처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이라고 하여,¹⁰²⁾ 일본의 상무적 기질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정희득은 일본에서 생활하며 그들과 접촉하였고, 기간도 3년여에 이르는 만큼 일본에 대해 상세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권두문의 경우 일본군과 함께 생활 한 기간도 짧았고, 그것도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관찰한 것만을 기록한 탓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기술하였을 뿐,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권두문이 일본군에게 사로잡힐 때 副室 姜氏는 강물에 몸을 던져 절개를 지켰다.¹⁰³⁾ 이때 일본군은 강씨의 절개에 크게 감탄하여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시체를 얹어 태웠다. 이에 대해 권두문은 火葬은 일본의 풍속으로 死節을 찬미하고 예로써 장례를 치른 것으로 평하였다.¹⁰⁴⁾ 일본에서 불교의

99) 야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의 위음, 이계황 외 옮김,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 비평사, 2003, 37쪽.

100) 『扶桑錄』, 丁巳年 7月 9日(辛未) 調興爲設飯以呈曰 日暮入館舍 恐未及設廚 敢呈薄具云云 饌品極精.

101) 『南川先生文集』 卷2, 錄 虎口日錄 8月 29日 賊魁寢房 必設高床 不用溫突.

102) 『海上錄』 卷1, 風土記 自倭王以至庶人 皆不爲溫突 問之則曰 人處於溫暖之所 則心神懶懈 無輕決之心 故不爲也.

103) 강씨의 행적은 강원감사 姜紳, 경상감사 韓孝純의 啓聞으로 조정에 알려졌다. 1593년 宣祖는 제물과 제문을 내렸고, 1612년 光海君에 의해 정려되었다(『南川先生文集』 卷4, 姜節夫閭閻實錄). 강씨의 행적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도 수록되어 있다(『東國新續三綱行實圖』 卷7, 烈女圖 召史墮崖).

영향으로 화장이 시작된 것은 헤이안(平安)시대부터였고,¹⁰⁵⁾ 이후 화장은 일반적인 장례법이 되었다. 반면 조선의 경우 불교식 화장법이 유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의 장례 풍속에 대해 강항은 喪禮가 없다고 평하였고,¹⁰⁶⁾ 정희득 역시 喪禮나 祭禮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였다.¹⁰⁷⁾

이처럼 임진왜란기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의 장례풍속을 미개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권두문은 자신의 부실을 화장한 것에 대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예로써 장례를 지낸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조선의 상례를 기준으로 일본의 장례법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권두문은 강씨의 죽음을 일본군이 의롭게 여기고 禮葬했다는 사실을 통해, 일본군도 人性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였다. 이는 권두문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의 풍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권두문이 일본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포로가 된 후 권두문은 여러 차례 자결을 시도했지만, 함께 포로가 된 아들의 만류와 일본군의 감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두문 뿐 아니라 강항과 정희득 등도 일본군에게 사로잡혔을 때 자결을 시도했었다. 이처럼 일본군의 포로가 된 이들이 자결을 시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랑캐라고 생각한 일본군의 포로가 된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성리학적 대의명분의 하나인 君主에 대한 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104)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11日

賊曰 窟中墜死者何人 黑主泣言曰 我之庶母也 倭將相與歎美而言曰 自渡海以來 惟一汝母而已 聞賊積薪於屍上而焚之 盖倭俗以火葬爲禮 此必取其死節 而葬之以禮也.

105) 최삼창, 「민간신앙」 『日本民俗의 理解』, 시사일본어사, 1997, 204쪽 참조.

106) 『看羊錄』, 賊中見聞錄 壬辰丁酉入寇諸倭將數
日本素無喪禮.

107) 『海上錄』卷1, 海上日錄 戊戌 3月 3日

有識者 服親喪三十日 其餘皆四五日 以殺戮爲耕作 戰功爲第一 家家懸佛像尊尙之 刑罰甚酷 詩書禮樂 謾不知何事 耽對玉碁 日夜歡樂 死後燒身 無塚無祠云.

권두문은 포로가 되었을 때, “군주가 옥보는데 신하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¹⁰⁸⁾며 목숨보다 義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군과 함께 이동하다 端宗의 묘인 魯山墓(지금의 莊陵)에서 눈물을 흘린 것¹⁰⁹⁾ 역시 일본군의 침입으로 국왕이 피난 가는 지경에 이른 비참한 상황을 슬퍼한 것이기도 하지만, 포로가 된 자신의 처지를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권두문이 원주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다.

낮에 젊은 일본군이 수급을 가져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다. 모두 말이 없자, 저희들끼리 서로 다투어 보려 한다. 이 때 늙은 기녀가 포로가 되어 지나가다 원주목사 金梯甲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順初公은 죽어 영광이오, 나는 스스로 죽지 못해 그 같은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게 한이오”라고 했다.¹¹⁰⁾

위 글을 보면 일본군은 수급을 들고 다니며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조선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겠지만,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라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군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일본군이 수급을 확인하려 했던 것은 아마도 그것이 양반 신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原州牧使 金梯甲은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고, 가족은 모두 일본군에게 살해당했다.¹¹¹⁾ 때문에 일본군은 자신의 공을 확인하기 위해

108)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11日
主辱臣當死 蟻命何惜.

109) 위와 같은 책, 8月 16日
行過墓門 式於鞍上 淚下不禁矣.

110) 위와 같은 책, 8月 26日
午一小倭持人頭 先至以示 吾等曰 此誰頭耶 等皆無言 留陣羣倭 爭會見之 老妓亦擄入 適過謂吾等曰 此令監子弟頭也 吾曰 順初牧使金梯甲字令公 死亦光矣 恨吾之 不能自死 而同其光也.

조선인 포로들에게 수급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권두문은 포로가 된 기녀를 통해 수급이 원주목사 김제갑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자신은 살아 적의 포로가 되었고, 원주목사는 가족과 함께 모두 일본군에게 살해당했다. 포로의 신분인 권두문은 죽은 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때문에 글로나마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명복을 빌었던 것이다. 또 비록 전쟁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 위해 수급을 들고 다니며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보기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을 통해 권두문은 일본군에게 禮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평창 점령 후 매일 밤 일본군은 조선의 여성들을 범하였고, 여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다.¹¹²⁾ 일본군에게 사로잡힐 때 자신의 부실 강씨는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또 자신이 다스리던 고을의 여성들은 밤마다 일본군에게 강간당하는 처참한 정황을 밤새도록 들 수 밖에 없었던 권두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일본군은 조선의 여성들에게 의복수선과 목욕 시중을 들게 했다. 성리학적 가치관하에 男女有別의 分을 중요시 여기던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목욕시중 드는 것을 괴로워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권두문은 차마 볼 수가 없고, 가슴이 메어진다고 표현하였다.¹¹³⁾ 이처럼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조선의 여성들을 성적 노리개 또는 옷 수선이나 목욕시중과 같은 일에 동원하였다. 비록 전쟁 중이라 해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 권두문은 일본군을 남녀의 분도 모르는 야만인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111) 『宣祖實錄』 卷31, 宣祖 25年 10月 庚寅; 『宣祖實錄』 卷31, 宣祖 25年 10月 丁未.

112) 『南川先生文集』 卷2, 錄 虎口日錄 8月 12日

夜夜女人呼泣之聲 出於柵中處處 必是倭徒侵之也.

113) 위와 같은 책, 8月 29日

西上房副將處 有靈原擄入婦女四五人 使之針縫倭服 少或不正 輒加叱打 不勝其苦 又有一處女 年可二八 盡去其所服 換着以草綠新天益 且給湯水 令自沐浴 嫂奩弱質 雖橫羞愧之心 而不得免焉 誠可痛哉.

일본군을 이적시킨 것은 그들이 문자를 모르는 것을 비웃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군의 문맹에 대해 권두문은

일본 장수나 군졸 모두 글자를 모른다. 오직 장수 옆을 따르는 한 두 명이 겨우 읊겨 쓰지만 뜻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문답을 나눌 때 간혹 문자를 써서 보이지만 모양이 되지 않고 뜻이나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나머지 군사들은 봉사나 귀머거리와 마찬가지로이다. 비록 종이와 붓을 구하여 글이나 일기를 써도 일본군은 보고 웃을 뿐 의심하지 않는다.¹¹⁴⁾

라며, 일본군을 비웃고 있다. 이 시기 일본에서 문자를 아는 층은 승려들이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대외문서를 전적으로 승려들이 주관하였다.¹¹⁵⁾ 히데요시 역시 조선출병 때 일본군 각 진영에 승려들을 종군시켜,¹¹⁶⁾ 그들로 하여금 조선에서의 포고문 기초, 강화권고문 작성과 교섭, 경전의 수집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¹¹⁷⁾ 즉 히데요시는 당시 일본의 지식인이라 여겨지던 승려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점령지에서의 통치를 돕도록 했던 것이다.

하지만 승려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히데요시는 문자를 아는 조선인을 일본으로 데려와 교육시킨 후 다시 조선으로 파견시키려 했다.¹¹⁸⁾ 사

114) 위와 같은 책, 8月 20日

倭將倭軍 皆不識文 惟將魁前 近侍倭一二人 畧知寫字 而亦不解蒙 然必尊而貴之如有答問事 或書示 而不成字體 文理亦不通 餘卒有同聾瞽 故雖求覓紙筆 而修書或寫日記 倭徒視而笑之 不復有疑也.

115) 西尾賢隆, 『京都五山の外交的機-外交官として禪僧-』,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II, 東京大學出版會, 1993 참조.

116) 조선에 건너 온 종군승려들로는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의 덴케이, 소우 요시토시(宗義智)군의 겐소(玄蘇)·竹溪宗逸·三玄, 제2군 나메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군의 是琢, 제6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군의 에케, 제7군 깃카와 히오이에(吉川廣家)군의 俊岳 등이었다.

117) 中村榮孝, 앞의 글, 140쪽.

118) 北島万次, 앞의 글, 153쪽 참조.

실 일본군이 권두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두었던 것도 히데요시의 이 같은 정책 때문이었다. 즉 함께 포로가 된 아들 주가 글을 아는 까닭에 일본으로 데려 가기 위해 권두문을 살려 두었던 것이다.¹¹⁹⁾ 권두문은 일본군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과 아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처한 일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런 한편으로 글을 알지 못하는 일본군을 귀와 눈이 있어도 소용없다며 비웃었다. 이는 비록 일본의 군사력이 강할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조선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우월감을 표출한 것이다.

5. 맺 음 말

이 글은 임진왜란 당시 평창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점령과정과 통치 정책, 조선의 현직 관료가 일본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구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평창과 같은 내륙지역은 전쟁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정부가 일본의 침입을 예상했지만 왜구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해안지역 방어만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침략 후에도 평창은 전쟁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6세기 들어 강원도는 호구와 전결지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군사를 모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19) 『南川先生文集』卷2, 錄 虎口日錄 8月 12日

倭將誘之曰 汝是上官之子 容貌且英邁 豈未之學乎 汝若識字 則我不殺汝 將錦衣衣之 珍食食之 佩汝好刀劍 騎汝美鞍馬 給以徒從 待之尊重 若歸日本 則當作美官 可享富貴 不亦樂乎 黑主曰 父子人倫之 至今到死地勢 不俱全倘活 我父放而送之 則我雖在此 可以安心 不然安有父死而子獨生之理乎 倭將曰 汝父之至今免死者 專爲汝也 當赦汝父子並歸日本 以悅汝心.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당시 권두문은 일본군이 조선의 팔도를 나누어 분담·통치하려 했다는 사실, 침입해 온 일본군의 규모나 이동경로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 중 조선이 일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지역간 연락체계가 불통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조선 출병 이유를 국왕의 폭정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해방군으로 선전하였다. 평창을 점령한 요시나리는 강원감사를 자칭하면서, 격문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또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일 것 같은 양반은 감옥에 가두어 둔 채, 하급관료와 백성들은 모두 풀어 주었다. 이는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적대의식을 고취시켜 피지배층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행정 실무자인 서리를 통해 지역사정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점령지를 일본군의 영향하에 두려 했다. 또 남성은 식량 확보와 군수물자 수송에 동원하였고, 여성은 의복수선, 목욕시중, 성적노리개로 이용하였다. 백성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본군에게 협조했지만, 일본군 통치하에서 생활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때문에 점차 백성들은 일본군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일본군의 점령지에서의 통치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군이 조선점령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점령지에서의 통치정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점령지역을 근거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전쟁 초기에 국한된 일이지만, 권두문의 눈에 비친 조선과 일본의 전투력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조선군은 일본군을 보고 겁부터 냈다. 하지만 일본군은 적을 속이는 계교에 능할 뿐 아니라 진지구축, 병기관리, 수직자세 등이 매우 절도 있었다. 때문에 권두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선이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야간기습작전을 통해 적장이 자는 곳을 집중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권두문은 일본군의 식습관, 잠자리, 장례풍속 등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였다. 즉 일본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 중심적 이해가 아닌 상대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반면 일본군의 생명경시와 잔인함, 조선 여성에 대한 강간과 목욕시중 등을 통해 일본군을 禮를 모르는 존재로 규정했다. 특히 일본군 대부분이 문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통해 조선의 문화적 우월감을 확인하였다. 결국 권두문은 일본의 전통적 풍속에 대해서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지만,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性理學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평창을 점령한 일본군을 통해 임진왜란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글은 평창·원주라는 한정된 지역과 권두문이라는 개인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는 타 지역에서의 구체적 사료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의 구체적 사례 발굴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6. 4. 24,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권두문, 일본군, 임진왜란, 점령정책, 평창

<ABSTRACT>

Japanese Army Observed by *Gwon Du-mun*,
Headman of *Pyeongchang-gu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Korea in 1592

Bang, Ki-cheol

This thesis aimed at clarifying what the process of Japanese Army occupying *Pyeongchang* and its ruling policy were like and how an official of *Joseon* estimated the Japanese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Korea in 1592.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land areas such as *Pyeongchang* rarely got ready for war because *Joseon* Government strengthened defense of only coastal regions anticipating Japan would invade *Joseon* on a scale of Japanese pirates. Eve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Pyeongchang* hardly prepared for the war. This was because a sudden drop in population and farm land of *Gangwon* Province in the 16th century resulted in the short of strength to gather soldiers. During the war, *Gwon Du-mun*, headman of *Pyeongchang-gun*, had no idea of the scale of Japanese Army and their moving route. This fact indicates that *Joseon* was short of information about Japan and that liais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gions, and between regions did not work.

Calling himself superintendent of *Gangwon* Province, *Mori Yoshinari*, who occupied *Pyeongchang*, relieved people of their anxiety and imprisoned the *yangban*. In particular, he tried to place the area under the control of Japanese Army by understanding the local conditions through *seori*, an

official in charge of administration, and entrusting them with government. This purposed to inspire the governed class with hostility against the governing class in the areas they occupied and adopt them as a power who would be friendly for Japanese Army. People in *Pyeongchang* helped the Japanese Army at first. As time went by, however, they had grudge against the Japanese Army and their ruling policy failed. One of reasons why the Japanese Army could not achieve the purpose of occupying *Joseon* was that they could not make the areas they occupied a base as the ruling policy failed.

Gwon Du-mun who became a prisoner of Japanese Army observed various aspects of the army. First of all, they were skillful in deceiving the enemy and very good at building up positions, managing arms and standing moderately in a vertical posture. He described Japanese soldiers' dietary habits, beds, funeral customs as they were. In addition, he prescribed them as persons who did not know courtesy depicting that they took life lightly with cruelty, raped Korean women and had Korean women attend themselves during their bath. Particularly, he identified *Joseon* was superior Japan in culture through the fact that most Japanese soldiers were illiterates. In conclusion, *Gwon Du-mun* estimated traditional custom of Japan from the viewpoint of relativism, but criticized them strongly for destructing basic ethics and morals on the stern basis of Neo-Confucian philosophy.

Key Words : *Gwon Du-mun*, Japanese Army,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Korea in 1592, Ruling Policy, *Pyeongchang*